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성도와 교회 -빌립보서-

시편 23:1-6, 빌립보서 1:1-6

정윤돈 목사님

요약

서론 : 신앙생활의 두 가지 요점 -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

1. 빌립보 교회의 설립 배경과 특징

2. 빌립보 교회의 문제점과 바울의 메시지

- (1) 분쟁과 시기에 대하여 :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여 하나가 되라.
- (2) 엘리트들의 자기 자랑에 대하여 : 그리스도를 목상함으로써 겸손하게 행하라.
- (3) 일에 빠져 기쁨을 놓친 사역자에 대하여 : 기쁨, 평안, 관용, 기도를 회복하라.
- (4) 훈련을 멈춘 성도들에 대하여 : 훈련을 멈추지 말고 달려가라.

결론 : 바울의 모습에 나타난 복음화의 모습

- (1)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성령충만의 상태
- (2)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가치있는 것임을 깨달음
- (3) 천명, 소명, 사명 감당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성령인도를 받음
- (4) 평화와 사랑을 체험하고 누림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모욕을 당하게 하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멸시를 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 이루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도 부활체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며 살아가 수 있도록 소망과 약속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도들이 주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하여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거룩한 주일에 주의 몸 된 전에 왔사오니, 아픔과 상처와 문제가 있다면 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깨닫고 주님께 참된 기도를 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로고스와 레마를 발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한 생명도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경적인 복음과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로 뿌리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잘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를 받고자 한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교회와 성도’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이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 너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으니, 이제 교회 생활, 선교, 사회생활, 모든 것이 복음에 합당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권면이다. 신앙생활을 우리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성경도 마찬가지다. 성경도 딱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복음이란 무엇인가’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는 내용이, 복음이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 아인슈타인이 하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카툰방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인슈타인은 ‘성경은 수준이 낮은 책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 반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나는 너무 알고 싶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그의 이론이 당시에는 대단한 이론이었지만, 지금은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뒤엎는 많은 새로운 이론들이 등장해 있는 상태다. 아인슈타인은 자기 이론을 붙잡고, 그 노트를 끌어안고 죽었다. 그러나 그의 이론은 지금은 고등학생만 되어도 물리학을 배우면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성경은 이런 지식을 초등 학문이라고 이야기한다. 진화론의 증거가 있는가? 하나도 없다. 박테리아가 진화해서 인간과 같은 고등생물이 된 것이라면, 인간에게 윤리와 도덕, 선과 악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알게 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악을 만드시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악을 제하시고, 그 문제를 다 해결하신 현상이 십자가다. 하나님의 사랑과, 죄 문제의 해결이 거기에 있다. 의로 우신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실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한 것이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한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마귀를 선택할 것인가? 복음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런데 더 정확히 들어가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란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여기에 오게 되었다.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하는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왔다. 여기에서 참 복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한다. 여러분은 어떤 학자보다 뛰어난 진리를 깨달으신 것이다. 그래

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 문제, 죄 문제 해결할 길을 주셨다. 참 선지자가 되어 주셨다. 죄 문제 끝낼 참 제사장이 되어 주셨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가 왕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사단은 우리를 틈탈 수 없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어서 마귀에게 당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참 주인으로 모시면 승리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복음만 정확히 깨달으면 복음적인 삶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에 대한 내용과, 복음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다른 어떤 사람도 정죄할 수 없다. 우리는 원래 1만 달란트 빚진 자 아닌가. 그런 우리가 어찌 100테나리온 빚진 자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어디 있겠는가. ‘저 사람은 틀렸어. 남편이 이게 잘못됐어. 너는 이게 틀렸어.’ 너무 옳은 말을 해도 그것이 죽이는 말이 되면 소용이 없다. 살리는 말을 해야 한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옳은 말만 하신다면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복음을 깨닫고 누려야 한다. 그러면 가정이,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빌립보서에는 ‘기뻐하라’ 라는 말이 19번이나 나온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왜 이런 말을 계속 하는가? 빌립보 교회가 부흥은 되었지만 그 안에 갈등과 싸움이 많으니까, 교회만 가면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권사님이요 장로님이요 목사님이요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다. 대표적으로 두 여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보다는, 서로 경쟁하는 마음만 가득해서, 행복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나는 아무 동기가 없다.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바란다. 너희도 갈등하지 마라. 주인 되려고 하지 마라. 인간적인 갈등 하지 마라.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데 이 땅에 오시지 않았느냐. 겸손을 배워라’ 하고 말씀하는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다.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나? 빌2:25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요.” 무슨 말인가?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선교현금을 가지고 바울을 찾아온 것이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안의 모든 갈등도 바울에게 알렸다.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 원래 디모테를 보내려고 했던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보냈다.

1. 빌립보 교회의 설립 배경과 특징

(1)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설립되었는데, 그 개척 과정과 바울의 사역을 찾아보자. 바울은 스테판 집사의 순교 현장에서 처음 등장했고, 주도적으로 기독교인들이 핍박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충격을 받은 바울은 고향과 아라비아에서 십수년 동안 성경을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재적용하는 목상의 시간을 가졌다. 바나바가 이 소문을 듣고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와서 사역을 했는데, 여기에서 두 사람은 큰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안디옥교회는 말씀을 목상하던 중 선교에 대해서 깨닫고 가장 중요한 사역자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1차 선교여행으로 소아시아 지방을 순회하고 돌아온다. 그리고 마가 요한의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은 심히 다투고 갈라져서 2차 전도여행을 각자 떠나게 되었는데,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는 것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드로아로 가게 된다. 왜 예수님의 영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을까?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전도한 현장은 다 회당이었다. 여기가 다 유대인의 회당 아니었다. 안디옥교회도, 예수님도 선교사로 파송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유대인만 찾아가니까 막으신 것이다. 예수님은 선교를 하라고 했는데 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으셨다. 이것을 깨닫고 기도하던 중에, 바울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해서 들어간 곳이 빌립보였다. 마게도나 지방의 첫 성이었고, 해안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다. 네압볼리에서 내려서 내륙으로 들어가면 나오는 큰 도시다. 여기에서 바울은 루디아를 만나고, 여종을 만나고, 간수를 만나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기묘한가? 하나님은 이방을 위하여 선교하라고 해 놓고, 거기에서 유대인인 루디아를 만나게 한 것이다. ‘루디아’는 아시아 남부 지역의 이름이다. 본명은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유오디아라고 생각되고 있다.

(2) 빌립보라는 도시와 빌립보 교회의 특성을 살펴보자. 빌립보라는 도시의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바울이 방문할 당시에 빌립보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이 빌립보는 마게도나에서 가장 중요한 성이었다. 그런데 로마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으므로 주변에 아민인들이 많았다. 그래서 빌립보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는 정책을 내놓았는데, 빌립보로 이주한 자에게 로마시민권을 주겠다고 한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 안에 로마 사람이 많이 있었다. 바울이 빌3:20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빌립보 안에 있는 로마시민권을 얻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쓴 구절이다. 로마의 시민권이 없어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 많은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처음 믿을 때는 좋았지만 나중에는 불행하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을 보면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글을 썼음을 볼 수 있다. 루디아는 소아시아 남부 지역의 이름이고, 본명은 유오디아로 추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빌립보 교회는 이 루디아를 시작으로 하여, 로마에서 이주한 지식인, 그리고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였다. 빌립보 교회는 부자 교회였는데, 초기부터 로마에 갈 때까지 바

울의 선교비를 도왔던 교회였기 때문이다. 빌립보서에는 그 감사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타나 있다. 마음이 아무리 있어도 돈이 없으면 선교사 파송을 못 하지 않나. 우리교회가 지금 다른 예산은 다 있는데 선교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좀 해야 하겠다.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해야 하지 않나.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빌립보 교회는 선교비가 부족하지 않았다. 오히려 남아돌아서 싸우는 분위기가 있었다.

2.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고, 바울은 어떻게 답을 주었는가?

(1)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전도 사역을 했는데, 두 가지 성도들의 태도가 있었다. 빌1:15에 보면, 어떤 성도는 투기와 분쟁 속에서 전도 사역을 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게 싫으니까, 경쟁심리로 전도한 것이다.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다. 교회는 매주 나온다. 예배 때 나와서 포럼은 하는데 들어보면 다 가는 이야기다. 목회자를 까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이 있었다. 또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전도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가? “그러면 무엇이냐? 걸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빌1:18).” 이게 무슨 말인가? ‘교회 와서 싸우고 다투고 시기 질투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전도하고 봉사하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면 좋은 것 아니냐.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니까, 다 기쁘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라’ 하는 말이다. 그러나 분분하고 시기하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진정한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빌1:27 이하를 보면 바울의 마음이 나타나 있다. 이 첫 마디가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교회 생활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라는 것이다. 시기하고 분쟁해서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그런 동기로 하는 것보다 바른 동기로 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같이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다. 그런 바울의 사랑의 권면이 들어 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써, 너희가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투기하고 분쟁하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랬던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말한다. 빌1:10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살리고,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말, 그런 생각과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이다. 빌1:6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왜 이 말을 했겠는가? ‘너희가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는데, 너희가 지금 착하지 않지 않느냐. 겸손하게 착하게 은혜로 시작했는데 부흥하고 나니까 안 착하지 않느냐,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나는 간절히 기도한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시기를 기도한다.’ 언중유골이다. 가시가 있는 이야기다. 끝까지 착하게 하라는 이야기다.

(2) 두 번째 문제다. 엘리트 로마인과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의 지식과 배경을 자랑한다. 이것을 두고 바울은 말한다. 빌2:5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다. 빌3:4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무엇이냐? 바울은 누구보다 전문성이 있었고, 누구보다 뛰어난 지식인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믿어보니, 그런 모든 것, 명문 가문도, 좋은 배경도, 뛰어난 지식도 다 배설물이었던 것이다. 과거에 있었던 별 것 아닌 지식, 배경을 가지고 교만하지 말고, 더 많이 알수록 겸손하고 섬겨서, 존경받는 인격을 갖추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다. ‘과거에 나도 뛰어난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나는 그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 너희도 그러했으면 좋겠다.’ 지식, 전문성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과장법을 써서 강조한 것이다. 배설물로 여기라는 것이다. 이런 바울의 진실한 마음이 메시지 속에 담겨있는 것이다. 우리 램프들을 하나님이 높은 곳으로 올리시고 많은 전문성을 가지게 하실 것이다. 그때도, 목사님 설교에서 뭐가 안 맞고 뭐가 틀렸고 하는 식으로 평가하지 말고, 끝까지 겸손하고 겸허하게, 교회에 도움이 되는 제자가 되기를 바란다.

(3) 빌립보 교회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두 여인이 갈등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두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편지를 쓴다. 이것이 빌4:2에 나온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록 집어서 이야기한다.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빌4:3에, “참으로 나와 명을 같이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이 사람들은 지식도 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려운 다른 여인들을 돕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을 고자질한 사람이 있으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다. 연합한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 뛰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도와줘라. 그런 것이다. 유오디아가 루디아였다면 순두게는 누구였을까? 나는 간수의 부인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봤다. 그러니까 둘이 갈등을 한 것이다.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부교역자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 부교역자가 자기를 눈에 안 차는 것이다. 클레멘트가 능력이 좀 부족해 보이니까 별로 안 도와준 것이다. 중직자인데, 그래서 편지를 쓴 것이다.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이 있었느냐, 배워가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도와주어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마음에 안 들어도 다 천국 가면 만날 사람이니까.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4:4에 말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 없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말이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교회 일 염려를 자기 가 다 한다. 기도는 안 하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 전에 일부터 한다. 감사가 식었다. 그러니까 평안이 없다. 그래서,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열심히 헌금하고 사역하면서 기쁨도 평안도 관용도 없지 않느냐, 회복하라는 것이다.

(4) 신앙의 성장과 훈련을 멈추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한다. 빌3:12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메시지를 받고 있는데, 지금도 내가 달려가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훈련 안 받고 메시지를 겸손히 안 받고 평가하느냐,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3:13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꺾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두 번이나 달려간다는 말을 썼다.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믿음의 길, 훈련의 길을 달려가시기 바란다. 겸손하게 배워라. 평가하지 마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도바울의 모습에서 소중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모습을 찾고 우리도 실천했으면 좋겠다. 빌립보서를 보면서 바울의 복음화된 모습을 몇 가지 찾아보았다.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1)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기쁨을 잃지 않았다. 교회 내에서의 갈등은 기쁨을 잃게 한다. 그래서 기도응답, 성령충만이 필요하다. 우리 몸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영과 마음은 어떤 말씀을 읽고 듣느냐에 따라서 상태가 바뀐다. 뿌리, 잘못된 체질, 생각을 바꾸려면,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야 한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의 가치관, 인격, 생각이 바뀌게 된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참된 기쁨, 참된 세계는 거듭났을 때 보인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것을 내가 체험했다. 성경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너무 행복해지고 나니까 세상이 헛되고 가치없어 보였다. 수도원을 가려고 천주교를 연구해 봤는데, 책을 한 10권 쯤 보니까 완전 이단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붙잡고, 장가도 가고, 아이들도 낳게 되었다. (웃음) 그런데 이렇게 해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주님 한 분으로 행복하고 주님을 누리고 이렇게만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신경 쓸 게 많았다. ‘나는 체질도 성품도 정말 맞지 않는데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합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야, 나도 정말 안 맞는데 이 땅에까지 내려오지 않았냐.” (웃음)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셨다. “내가 그 정도 안 맞는데, 나는 얼마나 더 안 맞았겠느냐.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목회를 해라. 뛰어 들어가. 너의 십자가를 지고 와야지.” 바울이 똑같은 심정이었다. “내가 죽는 것이 낫다. 그러나 내가 살 이유가 무엇인가? 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치려고 살아있는 것이다. 바울이 죽기를 바라고 비난했던 사람이 빌립보 교회 안에 많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것이다.

(2)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가처있는 것이 바울에게는 없었다.

(3)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소명, 사명, 천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성령인도를 받으려고 몸부림쳤다.

(4) 바울은 평화의 사도, 사랑의 사도였다. 우리는 완전한 복음과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있다. 성도 여러분의 모든 삶도 복음화된 삶,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부탁하며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저히 예수님을 알아갈 수 없고 도저히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 된 우리를 불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자각 없는 저희를 불러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후대를 위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특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부름을 받았으니,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의 인격과 모습, 영적 상태가 되어져서,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기쁨과 평화,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며, 그리하여 지역과 민족, 세계 살릴 3천 제자를 세우고,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습니다. 아멘.”